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57호
10월 10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한교연·감리교 예배복귀 선언 지지

정치이용 기독교만 탄압 코로나정치 중단 촉구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연합은 지난 9월 29일(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예배를 감내할 수 없다면서 한교연의 정상적인 예배, 감리교단의 교회 예배 복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질병관리청,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국민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앞세워 자칭 촛불 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오늘로써 3년 5개월로 접어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원전이 네 거냐?', '기업이 네 거냐?', '아파트가 네 거냐?', '교회가 네 거냐?',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냐?'라는 등등의 탄식과 절규가 점점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한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정국에 이르러 전 국민과 대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주인과 전·월세자 모두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는 전에 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공동체 모임 등 교회의 본질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히고 성명을 이어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첫째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나라가 네 거냐?"라고 묻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일당 독재 북한 주체사상과의 낮은 연방제 국가인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26시간을 숨기고 이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 북한과 생명공동체 운운의 UN 연설과,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군부에 평화를 지시한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대통령인지" 물었다.

또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찰 개혁이란 정적에게 맹견화하는 것인지, 검찰 인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편무죄 네편유죄 진영논리 조폭논리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국공사태와 공공의대 설립 사태가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아빠찬스 조국 전 장관과 엄마찬스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평등·공정·정의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질병관리청에게 "코로나19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며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데 무엇으로 확진자를 고쳤는지, 코로나19의 치사율 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2,900명),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27,000명), 경제문제로 자살한 자(13,000명)가 각각 9배 83배 40배가 더 높음은 무엇을 시사하는지, 유럽의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19는 사기요 정치적 목적이라고 선언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지, 마녀사냥과 같은 정치방역 프레임의 목적은 집회방해의 목적이 아닌지,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민노총 시위현장, 정부지자체 관청, 청와대 행사(질병관리청장 임명식장 등)에는 확진자가 왜 없는지, 왜 유독 기독교만 통제 억압 압제하는지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는 언론의 용어 선택까지 통제하며 개인 신상을 비공개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이들은 한국교회 각 교단 총회와 기독교 단체에게 "코로나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만홀히 여기며 대적하며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인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 말살 정책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를 통제·압제 해산의 수순임을 알아야 하며 정치에 속수무책으로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훼손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기독교의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는 '교회 예배 복귀 선언'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넷째,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게 "4.15총선은 정의로웠는가?"라고 물으며 "당선 무효소송이 역대 최다인 114건이나 접수된 4.15 총선은 과연 정의롭고 공명한 선거였는지,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법정 선고 기한인 6개월이 다가오는데 어찌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수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공정한 재판으로 속히 사실을 규명하고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 또한 속히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그 모든 내막을 구명하고 법에 따른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다섯째, 국민들을 향해서는 "기독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종교로, 138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인의 영혼 구원과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기독교만이 지금의 난국에 앞장서서 불의에 항거하며 공의를 외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임을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란 행정명령 앞에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기독교는 결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른초장 맑은시내

'변경할 수 없는 중대한 원칙'

조용목 목사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3~17)

자연법칙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연법칙에도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본문에 그 원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을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문에 계시된 두 가지 대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골 1:14)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하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지배아래 있고 마침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시민이 됩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부유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쉽게 깨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한없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온통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인생을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말아 주관하여 주십니다.

둘째 원칙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우선적인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때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식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잘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한교연, 성명서 통해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 규탄

국제사법재판소 통해 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조속 강구 강력 촉구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끔찍한 만행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면서 한국교회 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한교연은 북한이 이 같은 패악한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눈뜨고 아무 대응도 못했다는 사실에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잔인무도한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북에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사법 재판소를 통해 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한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의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한국교회 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우리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살해는 2008년 금강산 관광도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당한 박왕자 씨에 이어 두 번째이다. 북한이 이 같은 패악한 만행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군은 6시간 동안 눈뜨고 아무 대응도 못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꽃게잡이 불법어업 단속을 하던 중 실종된 우리 국민은 공무원 신분이다, 무장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란 말이다. 그런 그를 총격을 가해 무참히 사살한 북한은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며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운운하며 가면을 쓴 호전적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종전선언을 안 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토록 끔찍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인가.

북한은 우리 정부의 평화와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26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18개의 대북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닌가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힘과 의지가 있는 나라인가 절규하며 통탄해 마지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 정부는 그가 월북을 시도했느니 안했느니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가 설령 자진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제 발로 찾아온 민간인까지 무참히 살해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인도적인 북한의 만행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확실한 대응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힘을 수반하지 못한 평화는 한낱 헛된 구호일 뿐이다. 상대는 6.25 남침 이후 한반도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 없는 호전적인 집단이다. 그들에게 관념적 평화란 조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북한의 잔인무도한 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북에 책임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사법 재판소를 통해 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2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미래목회포럼, 경북 문경 찾아 위로

어려운 환경 속 농촌교회 목회자 위로 격려

해마다 민족 명절인 추석과 설날을 기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 왔던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이 지난 9월 18일(금) 경북 문경 모리아영농조합 소망교회(담임 김완희 목사)를 찾아 '고향교회 목회자 위로회'를 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목회포럼 주요 임원들과 문경기독교연합회(회장 최정민 목사)와 인근 지역 목회자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대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고향교회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부모님의 품과 같은 곳"이라며, "여러분들이 고향교회를 굳건히 지켜 주기에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라고 힘들고 열악한 중에서도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경기독교연합회 회장 최정민 목사(영강교회)는 "모두가 힘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 미래목회포럼을 통해 귀한 사랑을 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지역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힘든 시기로, 함께 힘써 나가자"고 답했다.

이어 미래목회포럼은 문경 지역 목회자들에게 선물과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고향교회 선물 및 헌금 보내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고향교회에 선물이나 온라인 헌금을 통해 고향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힘을 주자는 취지다.

합동 이대위, 세이연 등 이단 규정

'목회와 진리수호' 발행인 박형택 목사 이단옹호 건은 한 회기 더 연구

예장합동총회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이하 세이연)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리교 이인규 씨에 대해서도 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고 재차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 씨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페 이용금지와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 등 교류를 철저하게 금지키로 했다. 이대위는 104호 총회 수임안건 최종 보고를 통해 세이연은 반 삼위일체를 주장함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자구 수정해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회와 진리수호' 발행인 박형택 목사의 이단 옹호의 건은 한 회기 더 연구키로 했다.

감리교 이인규 씨와 관련 지난해 104회기 이대위는 조사청원을 통해 "이인규(감리교권사)씨는 특별계시가 계속된다는 주장으로 2017년 본 교단 102회 총회에서 '교류금지'로 결의된 자다"며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이인규를 조사해 이단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특히 "본 교단 102회 이단대책위원회 총회보고서는 「이인규 씨는 감리교 권사로서 사업을 하다가 이단연구를 하면서 이단 연구가가 됐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 이단연구가'라고 할 수 있다. 이인규 씨의 사상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전제 한 후 "첫째는 오늘날도 특별계시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이원화하며, 셋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redemption)을 이루셨다고 하며, 넷째는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실제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 다시 피를 뿌렸다는 것이다.」 본 교단의 연구 결론으로 「이인규 씨는 평신도로서 이단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대위는 "본 교단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는 이인규 씨의 이단연구 결과물에 의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그의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까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대위는 "결론적으로 이인규 씨는 본 교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격을 일삼아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본 103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이인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세이연에 대해,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철저히 교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고 했다.

한기총 공석인 대표회장 선출 위해 시동

김창수 직대 정관에 의거 선관위 구성…선관위원장에 엄신형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목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표회장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처에 나섰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창수 목사는 정관 제20조 제1항의 의거해 유고중인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증경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를 선임했고, 각 위원으로는 엄정묵 목사, 강기원 목사, 정학채 목사, 김명중 목사, 도용호 목사, 이은재 목사 등을 구성했다.

이에 선관위는 9월 21일 회의를 갖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입후보공고 및 10월 중 치러질 대표회장 선거일정 등도 공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퇴치, 차별금지법 폐기, 예배회복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 제105회 정기총회

이광용 목사
예장보수합동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 총회는 지난 9월 14일(월) 오전 11시 총회 본부에서 제10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이광용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가족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19의 조기 퇴치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과 한국교회 말씀의 개혁과 성령충만과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한 후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회 서기 최명철 목사의 기도, 연합방송노회 서기 김영복 목사의 성경봉독, 연합방송노회 회계 이찬송 목사의 특송, 증경총회장 조요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빌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삶의 고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과 같은 삶,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총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을 위하여' 한남노회 노회장 박건배 목사,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들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연합방송노회 노회장 배기철 목사, '한국교회와 보수합동총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동서울노회 노회장 김계수 목사가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의 광고 후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총회장 이광용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3부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예산안 등은 각 부에서 보고받고 미진한 안건은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제105회 총회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장 이광용 목사를 총회 발전을 위하여 연임하게 했으며 그 외 제105회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광용 목사 부총회장 김용희 목사 서기 이대원 목사 부서기 배기철 목사 회의록서기 김계수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광제 목사 회계 박건배 목사 부회계 이찬송 목사 총무 최명철 목사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온라인으로

이승희 목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애국"

50년 이상을 진행해 온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지난 9월 28일(월) 진행됐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대하 7:14)'을 주제로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참여자들과 함께했다.

기도회는 두상달 회장(국가조찬기도회)의 사회로, 김진표 국회조찬기도회 회장(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개회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대면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며 "이번 기도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6만여 교회 1,200만 성도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주요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해외 172 나라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도 함께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의 성경봉독 후 이승희 목사(대구반월교회 담임, 합동 증경총회장)가 '대한민국을 치료하라(대하 7:13-14, 요삼 1:11)'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애국"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 화상 기도회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다.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다. 세계인들이 코로나와 코리아를 혼동할 만큼 우린 대단한 홍역을 치렀다. 제가 목회한 대구는 그 당시 죽음 같은 공포의 시간을 지나왔다. 지금도 그 열병의 후유증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영상 격려사 후 김태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장대신, 총회장에 이상재 목사 추대

코로나사태 거룩한 예배회복에 총력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제55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효 중인 관계로 장소를 급히 변경해 지난 9월 14일(월) 의왕시 소재 뜰인채2에서 비공개로 개최해 신임 총회장에 이상재 목사를 추대했다.

제55회 총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문경 STX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총회 임원회와 제55회 총회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381명의 총회 대의원이 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총회 실행위원과 부서장 임원회(신구임원)가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한 가운데 총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사태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간구 중에 있는 총회 임원회에 56개 노회 중 54개 노회가 총회 대의원과 장소 및 일정을 위임한 바 있다.

총회 산하 전국 노회의 전폭적인 위임 아래 총회 임원회는 총회 대의원을 총회실행위원(각노회장)과 부서장 총회 임원(신구임원)으로 구성된 제55회 총회를 개회하기로 한 것이다.

예장합동개혁 105회 총회 총회장에 정서영 목사

총회 심볼과 로고 새롭게 제작, 깊은 신앙의 색상 복음사명표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제10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2일(화) 오전 11시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로 소재 새만금 바람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외 회의를 선택한 총회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만큼 회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또한 합동개혁총회 로고와 심볼이 새롭게 변경되어 이번 총회를 시점으로 사용을 시작했다. 새 심볼과 로고는 세련된 라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깊은 신앙의 색상을 강조하면서, 총회의 무한한 복음사명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교단 배지도 변경되어 이날 정서영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새로 제작된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다.

이날 신임 총회장에는 정서영 목사를 유임시키고 임원진은 총회장에게 위임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박장근 목사(서기)의 사회로 진행, 이희정 목사(전북북노회장)의 기도, 전하리 목사(경기남노회장)의 롬 8:28 성경봉독 후에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서영 총회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티끌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고 전했다.

세기총, 사단법인 복음의전함과 업무 협약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함께 하기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9월 23일(수) 세기총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복음의전함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사역을 함께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임원 및 복음의전함 이사장 고정민 장로 외 임직원들과 함께했으며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격려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데 이 귀한 사역에 복음의전함이 함께하고 있어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광고매체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귀한 단체를 통해 이 복음전파의 사역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귀한 일에 세기총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월례회 갖고 태풍피해 입은 교회 위해 기도 부탁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9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132-4에 위치한 주님의교회(담임 방재홍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코로나19 조기퇴치와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성기찬 목사(방어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재무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의 대표기도, 박재홍 목사(주님의 교회)의 창 12: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브라함의 신앙여정' 이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황용식 목사(언양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순복음한마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황용식 목사의 회원점명, 권점식 목사의 교단 지방회 보고 후 성기찬 목사의 광고로 마무리하였다.

영남동지방회는 9월 월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순복음반석교회(담임 최용운 목사)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실종 어업 지도선 공무원 사건 논평

'사람이 먼저다'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 국민 안전이 실종되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47세)씨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그는 9월 23일 북쪽 해양으로 표류되어 가는 중 북한군에 발견되어 심문, 사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蠻行)이 발생했다. 그런데 24일에야 국방부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이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 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불잡아 뒀다가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소각까지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무대책으로 있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김정은의 사과 표시를 전하면서 ' 예의를 지켰다 '고 이 사건을 월북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가?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무죄한 실종 해양공무원의 사살과 시신 소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에 대하여 지나친 저자세 유화정책을 취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한 인권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살롬나비는 다음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실종자를 구하려 하지 않고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는 군당국은 누구의 군대인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뒤 군(軍)은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의 현주소를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다. 군은 국민 생명 ·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군이 우리 국민이 적군 총부리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6시간을 구경만 했다. 이미 북이 접경지대 접근자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

모든 채널을 통해 안전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섰어야 하는데 '설마' 하며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은 어쩌면 문 정권의 눈치와 북의 눈치를 보며 군으로서 책무 수행을 아예 포기했을 수도 있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군(軍)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있는 데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군은 누구를 위한 군인가?

2. 국민이 사살되도록 보고만 있는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가 되어 버린 것인가?

군은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시신 찾기 위한 수색을 요란하게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다.

군은 우리 국민 총살 보고를 청와대에 올린 뒤에도 언론에 '실종 사건' 으로 공지하며 하루 넘게 국민을 속였다. 군은 여태까지 북이 미사일을 쏴도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평화 타령' 만 하는 청와대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국방부장관은 북의 시신(屍身) 소각에 대해 "코로나에 대해 절치부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 대변인으로 나섰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20만이 건재한데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는 게 지금 우리 군이다. 이 정권 들어 정치군인들은 남북 합의라며 우리 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가?

3. 대통령은 국민 생명의 보호자인데 실종 공무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이었다. 세월호 사고 때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에 신변안전부터 요청했어야 했다.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할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구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텐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시간 동안 공무원은 살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살릴 수 있었다. 헝가리 한국인 관광객 유람선 침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부장관까지 현장에 파견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마도 몇 시간 뒤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세울 '종전선언' 이벤트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틀 뒤 발표는 사실상 숨긴 것이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3일 새벽 1시반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 연설에서 '종전(終戰) 선언' 을 강조했는데 북한 만행이 바로 알려져 재가 뿌려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평소 말과 맞지 않는 대통령의 모순적인 모습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 보다 종전 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 북한에 대하여 국민생명을 요구하지 않는 자, 국민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국민을 사살한 북한에 대하여 응징 한마디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 있는가? 이런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다.

4. 최초 서면 보고와 대면 보고 사이 10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공무원이 실종돼 북한이 이를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사살사건 보고를 받고도 대응조치없이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 대통령이 이때부터 23일 오전 8시 30분에 첫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이에 공무원은 총살돼 시신이 훼손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심야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대통령의 10시간' 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육성(肉聲)과 행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서면보고 직후 적극적 구조를 지시했다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의 엽기 살인 만행이 벌어진 이틀간 문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을 거론하며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건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행적 역시 모두 밝혀져야 한다.

5. 친서(親書) 라인 가동하면서도 국민 구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의 확인과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한과 통신선이 모두 끊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부실 대응 논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는 25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실종 공무원에 대한 사태에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서 라인을 가동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즉시 연락해 '우리 국민에게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고 아무 일도 안 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에 북한군은 총을 쐈고, 시신마저 불태워 유기하였다. 사살됐다는 보고 받고도 아카펠라 공연 보러 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이 가져온 친서에서 "매우 미안하다"는 것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언론에 공개했는데 친서 라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공무원 구조를 위하여 가동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친서 라인은 남북 지도자 사이에 이러한 때에 가동되었어야만 했다. 국민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역할 못하는 친서 라인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6. 미국 대통령 클린턴, 독일 총리 아데나워와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행적에 비하면 문 대통령의 행적은 수치스럽다.

구서독 총리 아데나워는 냉전시 1955년 9월 모스코바를 방문하여 국교를 열고 소련이 억류한 만명의 독일 포로를 데리고 귀국하였다.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2004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납치피해자 일본인 5명을 데리고 귀국했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2009년 김정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성 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외국 지도자의 예를 보면 독재자는 국민을 깃털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인질로 삼지만, 민주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 쓰고 구출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북한군이 처음엔 구조 시도를 하다 '상부' 지시로 돌변해 사살에 나섰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김정은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실종된 사람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는 최소한 참혹하게 살해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 지금 북한에 인질로 잡힌 한국인 6명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이들을 전혀 송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번 실종된 수산부 공무원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에 구걸하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민주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7.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하여 단 한번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9월 25일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만 여섯 차례 외쳤을 뿐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피격 사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도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군의 역할 만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사살(射殺)한 북한군에 대한 도발, 만행, 규탄, 응징 등의 말은 하지 않고 대신 평화라는 단어만 6번 쓰고 있다. 정권에 반대하는 국내 인사들에 대하여 불법으로 구속으로 응징하면서 북한정권에 대하여 너무나 유화스럽다. 진정한 평화는 유약한 평화 구호에서 나오지 않고 군사력이 뒷받침된 단호한 상호정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세계대전 발발전 독일 히틀러와 뮌헨평화협정을 했던 체임버린 영국 수상의 유약한 외교모습을 보이고 있다.

8. 만행이라더니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반색하고 난선 문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에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를 곧바로 공개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사과" "김정은이 사살 지시를 내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8일 보낸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정은의 재해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김정은은 9월 12일 보낸 답신에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친서가 오간 이후인 지난 22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한 것이다. 북 사령부 사살 지시가 있었고, 현장 지휘관(북단속정 정장(艇長))이 "정말입니까?"라는 군 감청 내용이 9월 29일 밝혀졌다. 이는 "정장이 했다 "는 북한 통지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정은 아니면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전문가는 김정은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장이 지시"라는 북 거짓말의 보고를 받고도 ' 김정은 사과 '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조차도 북한의 통지문 형태의 사과는 외교 상의 사과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 군의 감청능력보다는 북의 통지문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실망케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김정은의 일방적 핵(核)유지 정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도 친서 공개 후 국회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정은의 '미안' 한마디로 국민 목숨을 대체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사과의 말 한 마디에 불문에 불일 정도의 가치에 불과한가?

9. '미안하다' 는 통지를 해온 김정은을 "계몽군주" 로 간주하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국민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미안하다는 통지를 해온 김정은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계몽군주 같다"(유시민) "통큰 측면이 있다"(정세현)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누리꾼들은 "계몽군주? 통이 커? 국민이 처참히 사살돼 화형당했는데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힐난했다.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는 '계몽군주' 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탈북자들을 코에 철사 꿰어 압송하고 북 외교관을 다리 부러뜨려 북송하는 김정은이 계몽군주일 수 있는가? 중국 전문가 캐나다 맥매스터대 송재윤 교수는 이런 칭송은 1960년대 중공의 홍위병들이 전체주의 독재자 모택동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등 양식 있는 학자 및 정상적인 민주시민들이 올바르게 반응한 바같이 김정은은 계몽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다.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땅을 칠 일이다. 김정은은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의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했다. 그는 절대권력의 수령으로 계몽군주가 아니라 제어불능의 폭군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이 적에게 사살을 당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그 적의 우두머리의 사과 한마디에 그를 계몽군주라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0.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대통령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그가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북한군은 표류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새벽 1시26분 대통령은 미리 녹화된 유엔 영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며 종전 선언을 했다.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명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한반도 연방제 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 는 주장이 그의 정치적 행동과는 상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에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으로 송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도 문 정부의 전체주의적 통일정책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다. 문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없고 김정은만 있나?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이러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문 정부의 처리방식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적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문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11. 문재인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강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당사자인 민간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인 쇼요 서류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북한 사회의 인권부재가 한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과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종하여 표류한 한국민의 사살에 이른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두고 표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외부인의 생명과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다. 문 정부는 여태까지 3년 반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사상 부재가 남한 공무원의 구조는 커녕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외부인의 입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다.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주민만이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20년 10월 5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정치적 방역 중단 촉구, 복음전파 총력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 코로나19 소멸 위해 기도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제9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9월 24일(목) 오전 7시 온양신광교회(이두영 목사, 본회 본부장)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예배 시작 전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이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 또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때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이므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어진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해서 장로(후원회)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 목사는 롬 8:28 말씀을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합력 선을 이룬다는 낙관론을 품었다"고 전하며, "우리도 나라가 어려운 이때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며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훈련 시키신 것처럼 이를 위하여 시간을 갖고 기도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본부장 이두영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순서로 보고회 및 공지사항으로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먼저,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국정 현안이 여당의 독주로 인한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과잉규제가 기독교계를 힘들게 했지만, 야당의 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

이어 아산시기독교연합회 김병환 목사(아기연대표회장)는 한 해 동안 코로나19 정국의 힘든 상황에서 아기연의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하였다. 곧바로 이어진 3부 순서로 박노섭 목사(실무회장)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별 기도회는 순서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박치영 목사(지도위원), '민족복음화와 아산시 성시화를 위하여' 이정팔 목사(상임회장), '중국우한폐렴(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온재천 목사(상임회장),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장헌원 목사(부회장)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고, 모든 참석자가 같은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임기식 목사(고문)의 조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의 광고 후 신광교회에서 조찬을 준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성이 듬뿍 담긴 애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생명의 말씀

손 마른 병을 고치시다

마 12: 11~1

엄 정 묵 목사
· 엘림교회
· 연세대 연신원 총동문회 증경회장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마침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바리세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할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기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25:26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받은 부와 재능으로 악행을 해서 벌과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 감추어 두고 그것을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마 5: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 10:42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 20:35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 9: 19~21 이하에는 한 청년을 향하여 계명을 지키었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시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손을 고쳐 주신 것은 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살후 3: 10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창 3: 19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도 일하지 않고 허황되게 생각하면서 어디 한 번 쉽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숙자가 늘어나며 온갖 도둑질과 강도 유괴 사기 거짓 폭행 행포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늙어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노동의 손을 내밀어 열심히 일을 하여야 궁핍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노동의 대가가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이를 보람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항상 손으로 노력하여 아름다운 사회로 건설함으로 노동의 보람을 찾는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사회건설을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쳐주신 이손을 가지고 봉사할 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 질것입니다.

이 손은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더욱 많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구제해야 합니다.

성도의 손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손이 되어야하고 죄악에 빠진 자를 건져 주는 손이요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의 손을 오늘도 내밀어야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주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손길이 되어야합니다.

사람이 손과 발이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사랑의 수고와 구제와 선교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동 정

구세군, 소외이웃에 구호키트 전달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구세군은 지난 9월 24일(목) 대한본영에서 나눔 행사를 갖고 구세군 사회복지시설과에 소속된 9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구호키트 8,500박스를 전달했다.

독일처럼 기도로 복음 통일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는 지난 9월 25일(금) 경기도 고양 성광침례교회(담임 유관재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보형 울산행복한교회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기도운동과 각 영역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中서 종교 탄압 심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기독교 지도자들은 중국을 비롯 이라크, 북한, 쿠바의 기독교 형제자매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 정애리, 표창 받아

배우 정애리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유가족을 위해 앞장서온 노고를 인정받아 '2020년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의전화는 지난 9월 28일(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정애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회 일부 지도자의 이견의 목소리가 교회 생명인 예배 지키기를 저해(沮害)한다면?

정부는 지난 8월 18일 "행정명령"을 통해, 19일 0시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통적인 예배 대신 일방적으로 변형된 '비대면 예배'만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타종교(불교, 천주교)의 예식은 제한하지 않았다. 교회에는 엄청난 타격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도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7월 24일 모든 공예배를 허락한다고 해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교회에서의 전통적 예배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제37조의 '과잉금지'에 해당하며,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교계에서는 즉각 소송대리인 추양 가을햇살 법무법인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게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에서는 지난 9월 3일 '기각결정'을 내린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종교의 자유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한국 교계 일부에서 나오는 전통적 예배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부정적으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후하여, 8월 17일 교계의 모 연합 단체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내고,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자만과 욕망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8월 20일 모 연합 단체의 대표회장 A 목사는 CBS 시사지키에 출연하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위해, 선도적으로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8월 21일 교계 시민단체의 상징적인 모 장로는 KBS 시사본부에 출연하여 '(비대면 예배)가 전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100% 없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 B목사는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널리 퍼졌고, 심지어 국가 권력의 핵심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또 다른 지방의 C목사는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여 언론에서 인기 있게 보도하였다. 이런 교계 지도자들의 발언은 나름대로 사회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성경적이고 전통적 예배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성경적 가르침의 예배는, 이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을 만나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중단하고(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한 상태임) 경건과 가치를 달리해도 되는 것이었나? 심지어 당연히 지켜야 할 예배가 무슨 잘못이나 문제라도 있다는 것인가?

예배의 때와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겠으나,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신앙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당하고 마땅한 것이 아닌가!

또 예배에서는 성도의 헌신과 교제와 봉사가 있어야 참다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건함과 엄숙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참다운 예배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는 '비대면 예배는 없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인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고백으로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召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지난 1월에 들어온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초유의 예배 중단(변형된 예배를 강요받음)이라는 위기를 만났다. 이에 대하여는 깊은 성찰과 함께 '예배 지키기'의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했다.

그런 일환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으로 보호받고자 시도한 일이, 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다른 의견을 발산함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는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과, 이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마저도 일일이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목회자, 교계 지도자들의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고 본다. 또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리라고 본다.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 개혁 포럼 ①

젠더주의기독교 대책협의회

9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 개혁'의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날 학술포럼과 함께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발대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1.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 개혁' 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된 취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학술포럼의 주제인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해 우리가 단지 비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이 올바른 정도(正道)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한국신학계가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굳건히하는 것이 중대 관건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2020년 인류문명사는 대전환을 이루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인류문명과 서구세계를 대신하여 대리전(代理戰)을 치루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위중한 때에 한국신학계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한다. 최대 위기상황에 처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흔들리는 신학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반(反)동성애 사역은 평신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목회자들이 사생결단으로 동역하지만, 신학계에서는 침묵·방관하거나 심지어 친(親)동성애적 행보를 보이는 현실이다. 신학자들은 동성애 옹호세력에 점령당한 교육현장에서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하거나, 신성모독 수준으로 음란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퀴어신학(queer theology)에 예언자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신학자가 교리를 굳건히 세워 영적·사상적 전쟁을 견인해 주길 기대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류 신학계는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퀴어신학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의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신학계의 영적·사상적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동료 신학자들이 소신있게 신학교육과 목회현장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자 한다. 성경의 진리를 바른 신학으로 굳건히 세워 세계교회와 신학계를 회복시키고 인류문명을 사수하기 위해 결기있는 행보를 내딛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움으로써, 다음세대에게 인류가 반드시 전수해야 할 숭고한 가치체계와 건전한 문화유산, 그리고 신실한 신앙전통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 우리 신학자들은 헌신을 결단하면서 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2.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가칭)을 발족하게 된 동기: 특별히 금번 학술포럼에서는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안을 제시하는 목회자 및 신학자들의 모임인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가칭)를 발족하는 순서도 진행한다. 장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미래 신학도들에게 대(代)를 이어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지지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우리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연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후대에 전수해주어야, 후대 또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신학자로서 젠더주의에 대한 사명감은 나날이 확고해져갔지만, 단체 설립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설립하도록 동기부여한 계기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일반교수들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신학대 교수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다"면서 깊이 한탄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귀한 평신도분들이 목사와 신학자들을 걱정하는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고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1년이 흘러 은사님이자 박사과정 선배님이신 김균진 박사님(연세대 명예교수)이 신학계 안에 젠더주의를 비판하는 기조가 대세가 되도록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단체를 결성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제 개인적 소견은 성경을 음란하게 해석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퀴어신학을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퀴어신학자들의 논리가 외견상 현란하게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비논리적인 궤변과 억지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특별히 퀴어신학의 폐해와 악영향으로부터 현 세대의 신학도들만이 아니라 후대의 신학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를 비롯한 퀴어신학 연구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퀴어신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

3. 맑시즘과 동성애 옹호활동 사이의 상관성과 '인권'의 진정한 의미: 그동안 젠더주의를 비판하는 학술포럼이 몇차례 열렸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학술포럼에서는 젠더주의를 옹호하는 진영이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을 간파하는 포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년 반 남짓 젠더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 하나가 동성애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성애 옹호진영이 주장하는 '인권'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질문이 문득문득 제기되었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동성애 문제를 단순히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맑시즘(Marxism)과 성소수자(LGBTQIA) 해방운동이 동일한 사상적 맥락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은 이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나 또한 이 사실을 젠더주의와 성혁명을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맑시즘과 성소수자 정치투쟁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은 이미 입증된 연구결과다.

여기서 우리는 맑시즘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과거엔 노동자를 이용했듯이, 오늘날엔 여성과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현실을 간파할 필요성이 있다. 즉 맑시즘이 한때 노동자를 선동해서 노동자 VS 자본가 대립구도의 계급투쟁을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여성을 충동해서 남성 VS 여성의 극심한 남녀갈등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받아왔던 서구세계의 동성애 역사를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일반화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성혁명을 일으키도록 충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맑시즘의 구심점이 '노동'에서 '성'(性)의 문제로 이동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동성애 옹호진영에게 있어서 과연 '인권'이란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 옹호세력, 곧 유물론 사상을 가진 맑시스트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물론을 주창한 칼 맑스(K. Marx) 자신은 당대에 무산자(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 인권을 부여해주면 혁명의 동력이 사라진다면서 인권을 경시했었다.

유물론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맑스 계열에선 결단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인권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다. 인권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창 1:27)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성립될 수 있다. 인간이 존엄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이것을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진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인권'이다. 이들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다름 아닌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일반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됨으로써, 동성애를 비판하면 반인권적·비인간적 비지성인으로 낙인찍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영혼이 없는 물질'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권이란 명목으로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도적으로 굳건히 세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 위에 세워졌는데, 유물론자들은 이를 전복/해체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 안에서 이들을 동조하는 신학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심화를 틈타 21세기 대한민국에 맑시즘이 재논의되고 있는데, 맑시즘과 함께 주체사상 세력이 한국교회 안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성애 옹호진영이 동성애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젠더주의의 최대 희생양이다. 젠더주의의 법제화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존재는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성애의 폐해와 위험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몸으로 실험하다가 비참한 인생말로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교회가 반대를 하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진영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동성애로 인한 HIV/AIDS 감염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들은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

- 다음호에 계속

포커스

낙태보다 출산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법·제도 마련이 먼저

바른인권여성연합 외 23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명지대 교수·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가 지난 9월 28일(월) 단체 성명을 통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다!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 입법 개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회의 내용은 낙태죄에 대하여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모자보건법의 수정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는 놀랍고, 비통한 심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의 행정과 입법, 사법부에 충심어린 호소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경제 제일주의와 이념만으로는 결코 국민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오늘날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이다. 당시 많은 이들이 경제 논리로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부에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는 위험한 인구 절벽에 서서 떨고 있다. 행복해지려고 만든 제도로 인해 불행이 바로 코앞에 와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진정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낙태죄에 대한 3번째 위헌 소송에서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 믿고 싶고, 실정법이므로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우리들의 양심법과 자연법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와 궤변으로도 태아가 엄연한 생명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종교와 관계없는 모든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려는 낙태법 개정안이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1.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헌재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모순된 의견으로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생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로 볼 때 이는 낙태 전면 허용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에 추가하려는 「사회경제적 사유」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결국 위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일부 합헌의견도 「사회경제적 사유들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처벌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4. 낙태 전 상담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여성에게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숙고한 뒤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헌재 결정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공익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부 여성운동가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종교의 차원에서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훨씬 더 많은 여성과 어머니들은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입법자들은 양육을 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숙려기간제도, 익명출산법, 남성 양육비 책임법, 싱글맘 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8월 13일 추미애 장관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일부 여성단체들의 의견만을 듣고, 임신 주수에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경악스런 소식을 듣고, 긴박감 속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40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생명수호 조직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9월 28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맹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단체 케이프로라이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한 글로벌디펜스뉴스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성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목양칼럼

이효상 목사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K-컬처 원조 기산(箕山), 《천로역정》에 흠뻑 빠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 정상을 2주 연속 지키며 K팝 아이돌로 한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한류문화의 원조는 누구일까. K(Korea)-컬처(culture) 원조는 당연히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화백이다.

김홍도로 대표되는 조선 시대 풍속화는 18세기 정조 때 전성기를 누리다 그의 사후 쇠락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엽 개항 이후 서양인 선교사들이 찾으면서 다시 인기를 누렸고, 해외수출 1호작이 나왔다.

이런 K-컬처!, '원조' 한류 풍속화의 그 중심에 기산(箕山)이 있다. 정확한 연대나 경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한말에 활약한 기산(箕山) 선생은 명실상부한 한국인 최초의 국제 화가라 할 수 있다.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독일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다양한 그림을 통해 당시 조선의 문화와 풍속이 세계만방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산(箕山) 선생의 그림이 국내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해외에 더 많이 전하는 것도 그의 국제성을 증빙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특히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준근 붐'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일어났다. 기산 그림의 품귀현상이다. 그럼에도 이 짧은 기간에 기산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그리고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1758-1813 이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약 한국 3대 풍속화가 대열에 당당히 입성했다.

기산(箕山) 선생은 국내 최초 출판된《텬료력뎡》의 삽화를 그려 냈다. 원전《천로역정(天路歷程,ThePilgrim's Progress)》은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1628~1688)의 소설로 1678년 초판이 나왔다. 꿈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기독도'이라는 남자가 '멸망할 도시(장망성)'를 떠나 '시온성(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크리스천이 인생의 여정에서 욕망과 싸우며 사탄의 도전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간다는 이야기로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잘 보여준다.

국내에서 1895년 첫 출판된《텬료력뎡》은 장로교 제임스 스카스 게일(한국명 기일·1863~1937) 선교사와 부인 깁슨이 공동 번역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진수를 간파해 이를 서양에 소개하고, 토착적 기독교를 한국에 심어주기 위해 애썼던 선교사였다. 이 책을 읽으며 책에 흠뻑 빠진 기산은 총 42장의 삽화로 당대 풍속화가 기산(箕山) 풍속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책에서 보여주는 '기독도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는 세계 최초의 갓 쓴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장면은 외래종교인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토착적인 전통을 반영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받으며, 다원이 삽화를 그린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함께 한국의 3대 미서(美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텬료력뎡》 초판본은 상. 하 2책으로 나눠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미려한 한지를 사용하여 한 장 제본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한글로 번역된 《텬료력뎡》은 장대현교회 길선주(1869~1935) 목사가 읽고 감명을 받음으로써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신촌성결교회를 세운 이성봉(1900~1965) 목사도 전국을 다니며 '천로역정 부흥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목사는 '멸망의 도시'를 장차 망할 성이란 의미의 '장망성'으로 표현했다.

한말 당시 기산(箕山) 그림의 첫 주문자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에드워드 마이어(1841~1926)로, 조선 정부로부터 독일 주재 조선국총영사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1884년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냈던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묄렌도르프의 권유로 제물포에 한국 첫 독일회사인 세창양행을 설립했던 사업가였다. 마이어는 이 그림을 포함해 기산(箕山)에게 주문한 조선의 풍속화 61점을 고향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현 MARKK)에 보냈다.

최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한 김준근 풍속화 총 79점이 최근 코로나19를 통고 한국에 들어 왔는데, 이것을 접한다는 것은 미술애호가 만이 아니라 코리스천에게도 즐거운 일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0월 5일까지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라는 특별전을 열어 대중을 만나고 있다. 기산(箕山) 특별전을 통해 세계문학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또한 한국기독교신앙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텬료력뎡》과 기독교 문화개척에 일생을 바친 게일 선교사와 김준근 화백에 대한 관심과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기산(箕山) 선생의 작품 중《천로역정》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 국문학사적으로도 당시 한글보급과 한글문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다. 최초로 번역된 《텬료력뎡》 초판본은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해 초기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문화재 685호에 등재된《텬료력뎡》 초판본은 한국 기독교 복음전파와 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희귀본으로, 철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하다.

《텬료력뎡》 출판 당시는 기독교신앙이 한국에 상륙한 당시 19세기의 한국은 열강의 간섭에 국기가 흔들리고 부패와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내세의 행복을 접하게 되는 '천로역정'의 이야기가 이 땅에 소개된 것이다.

천성을 바라보며 일제의 기독교신앙 탄압에 대항하여 순교로 맞선 신앙인들의 꿈은 '천로역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오늘에 '천로역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1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0. 8. 28(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 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0. 9. 03(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0. 9. 24(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0. 8. 28(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1. 2. 1(월)~2(화) 오전10시 ②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일정은 총회로 문의 바랍니다.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고 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손 혁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부회장: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길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주섭 목사, 김의중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장헌원 목사, 고영기 목사, 김주섭 목사, 이재두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이기언 목사, 안덕근 목사, 유현희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화 목사, 오세완 목사, 최문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형준 목사, 전병학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미숙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 인 안 장로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등용 목사 (세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중달 목사 (천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김천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헌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찬미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벧엘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 기	재 무	감 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된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이화숙 목사 (천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벧엘교회)	배용환 목사 (순복음전원교회)	옥보에 목사 (소망농아교회)	우광덕 목사 (선한목자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스더 목사 (예수향기기도원)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ASSEMBLIES OF GOD

문의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 · 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길 1

민주 우방들의 탈중국화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미 친중(脫美親中) 정책 우려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극한 충돌 상태로 치닫고 있다. G1과 G2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두 강대국이 갈등의 골을 파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이 돈독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의 환상일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파생된 후폭풍은 의외로 심각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 당초 중국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며 추진했던 까닭에 설사 미국의 제재와 같은 위협이 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왜냐하면 홍콩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금융의 허브라는 강점과 홍콩 내 미국인들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를 감안한 결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미국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외교적으로 상호 불가침 영역인 재외 공관 폐쇄 카드까지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 캐리 람 행정장관 등 11명을 제재했다.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극한 충돌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차원의 보다 확고하고 분명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살롬나비는 대한민국의 갈 길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친미교중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최근 미중 갈등의 골이 극한 충돌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는 암운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과 함께 중국 관리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최근 또 다른 대중국 압박 카드를 뽑아들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 명분으로 미중 수교(1979년) 직후 중국이 처음으로 개설한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인을 산업스파이활동 혐의로 체포하는 한편, 중국 유학생 및 연구원(3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 추방할 것을 검토하는 등 대중국 압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9월 7일에는 캐리 람 홍콩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고위관리들과 중국관리들 11명을 홍콩자치를 훼손하고 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했다. 해외언론에서는 미국정부의 다음 차례로 취할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맞대응하여 중국 측도 청두주재 미국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가 감지된다. 양국 간에 '강경 대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가 감행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금 경제전에서 외교전으로, 외교전에서 정보전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중 양국의 대립과 충돌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양국 간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경제관계의 악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외교관례를 넘어서 적대적 군사 대결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은 그간 중국 측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를 불법이라며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력 여하에 따라 양측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2.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압박과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비한 상황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앞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미중 간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요동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된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의 체제비판과 함께 신뢰관계가 불가능한 국가임을 지적하면서 대중국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고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까지 말했다. 그의 연설의 핵심은 5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또한 '중국을 앞으로 정상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해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민주국가 동맹이 하나 되어 중국공산당을 바꾸자'. '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라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 내용 중에는 그간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대만친구들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 기반과 질서를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과의 교역은 미국을 습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중국 인식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미중 대립 구도는 현재의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넘어서 동북아 안보와 세계적 전략차원에서의 안정과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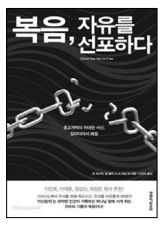
3. 문재인 정부는 미중관계 변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지낼 수 없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중국을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 공산주의를 겨냥한 우스갯소리들이 무수히 많다. '현재 중국의 이념? 그것은 맥킨지-레닌주의이다'라고 하거나 '시장-레닌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국의 신흥 거부 중에는 노동자 농민을 대표한다는 공산당(당원 8,000여 명)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유는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법 체제와 재산권 보호 체제에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현상은 중국사회주의나 중국 공산당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내적 뿌리는 여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외시 한다. 도덕과 윤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주먹이 법보다 앞선다. 국가사회에서도 법치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정치권력인 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홍콩보안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당의 정치권력이 만만치 않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살롬나비 논평

- 다음호에 계속

신간안내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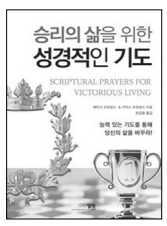
본서는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담긴 복음의 본질을 되새겨 주는 책이다. 복음연합 주최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아홉 명의 신학자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으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힘겨운 싸움이 담겨 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주요 교재로 갈라디아서를 활용한 점을 생각할 때, 건강한 신학자들의 통찰과 함께 갈라디아서에 담긴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저자/역자 : 존 파이퍼, 팀 켈러, D. A. 카슨 외/전의우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9-29 | (140*205)mm 256p | 판매가 : 14,000원

성경 전체를 여는 문 창세기 1-11장 다시 읽기

창세기 1-11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성경을 시작하는 이 본문은 어떤 현대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읽으면 매우 색다르게 다가온다. 창세기 1-11장은 혁신적인 텍스트로,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간의 복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독특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로써 고대 세계의 역사와 세계관을 바꾸고 새롭게 제시한다. 창세기 1-11장에 드러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저자들이 전제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신학적 관점과 통찰을 얻을 것이다.

저자/역자 : 고든 웬함/차준희 | 출판사 : IVP
발행일 : 2020-09-21 | (140*210)mm 172p | 판매가 : 10,000원



승리의 삶을 위한 성경적인 기도

기도는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것과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으뜸되는 주제이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마나 자주 기도를 중단할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족 상봉에서 먼 친척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분이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혼란, 긴장 또는 상처받은 기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강력한 기도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당신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저자/역자 : 키이스 프로방스,제이크 프로방스/한길환 | 출판사 : 엘맨
발행일 : 2020-09-29 | (148*210)mm 160p | 판매가 : 11,500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 순종의 선택이 어려운 저자에게 어느 날 친구가 "네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저자는 초등학교 때 쓰던 그림일기처럼 순수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SNS에 "저는 그림쟁이입니다. 그리고 예수쟁이입니다. 그냥 제 삶과 고민과 묵상을 나눌까 해요"라며 첫 글과 그림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혼자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한 글과 그림에 1만여 팔로워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번번이 고꾸라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기를 얻는 저자의 이야기에 진하게 공감하며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 그 글과 그림을 모아 첫 책,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를 펴냈다.

저자 : 이화하하(이화선)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9-23 | (130*190)mm 304p | 판매가 : 15,000원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860여 총대 온라인 총회 '소통과 논의' 돋보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2일(화) 온라인 비대면 총회로 개최된 가운데 총회장에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연임됐다. 제1부총회장에 정영근 목사, 제2부총회장에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안문기 장로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기립 박수로 추대됐다.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온라인 비대면 총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했으며, 총대 827명이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개별 접속해 발언권을 행사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체 총대 1,049명 가운데 총회 현장 참석자 33명을 포함해 총 860명의 총대가 참여했으며, 4시간 만에 질서 정연하게 총회를 마무리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총대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준 총회는 당초 걱정과는 달리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손을 들어 발언하며 전체 회무에 큰 문제없이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장종현 총회장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강조한 장 총회장은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총회가 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해야 한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편을 가르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화합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예장 개혁총연, 총회장에 김정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단으로 부흥 · 성장 시킬것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총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1일(월) 새중랑교회(담임 최원석 목사)에서 열려 총회장에 김정임 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회했다.

부총회장 고현석 목사의 인도로 드린 개회 예배는 직전총회장 김태경 목사의 말씀선포, 직전 부총회장 이승우 · 정미화 목사, 한남대회장 김상빈 목사가 △코로나19 종식 △총회, 대회, 노회 발전 △동성애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 △이슬람 퇴치 등을 주제로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직전 총회장 김태경 목사는 설교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라며, "한 해 동안 지도해주신 증경총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증경총회장 엄신형 목사를 비롯한 배동률 목사, 진상철 목사, 최원석 목사, 유동근 목사, 최원남 목사, 이은재 목사 등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자고 격려했다.

회무처리는 증경총회장 최원석 목사가 회순채택, 질서유지의원 선정, 전회의록 낭독, 규칙수정채택, 각부보고 등을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하고, 선정위원회 정상업 목사가 선정된 임원을 발표했다. 이어 신임 총회장 김정임 목사가 총회 휘장분배를 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장합동중앙, 총회장에 김영숙

김영숙 총회장, "한국교회의 개혁에 밀알"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는 지난 9월 15일(화) 오전11시 강원도 홍천 에덴숲 유스타운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열어 총회장에 김영숙 목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장'이란 주제로 개회된 이번 총회는 회의장에서 총회규칙 제8장 회의 제31조(회의규칙) 6조항과 사회적 거리두기, 전 회원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는 서기 한기용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권필수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 총회장 서옥임 목사가 벧전 1:13~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어려운 시대 이 또한 지나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계속해서 이정애 · 강명애 목사의 봉헌, 회계 조옥선 목사의 봉헌기도, 총무 이승진 목사의 광고, 총회장 김영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전 총회장 김영희 목사의 집례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으며, 3부 사무처리는 총회장 김영숙 목사의 사회로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경과보고,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장 김영희 목사의 총회장 당선공포, 임원개선, 임원교체, 상정안건 심의 후 폐회했다.

회원 만장일치로 재선출된 총회장 김영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54회까지 묵묵히 헌신하시면서 총회를 지켜주신 총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의 조용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 개혁의 밀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사)해돋는마을 엘드림노인대학, '사랑의 급식키트 전달식'

임마누엘교회 김옥자 목사와 (주)바로나 나정은 장로 후원으로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의 엘드림노인대학(학장 최에스더 교수, 신한대)은 코로나19사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급식키트 전달식'을 지난 9월 24일(목)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

이번 '사랑의 급식키트 전달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식사역이 중단되어 대체식으로 대신한 것으로, 임마누엘교회(담임 김옥자 목사)와 (주)바로나(대표 나정은 장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옥자 목사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대체식 키트를 준비 했다"면서,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기운을 내고, 희망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김옥사 목사님과 나정은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큰 사랑의 급식봉사로 섬겨 주셨으며, 오늘도 사랑의 대체식 키트와 함께 사랑을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되고 있어 점심을 굶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께 사랑의 대체식으로라도 섬길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해돋는마을 사무국장 최세연 전도사와 자원봉사자로 공선영 전도사(임마누엘교회)도 함께 했다.

한편 (사)해돋는마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월부터 급식 대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식사대용으로 매주 수요일 대체식으로 섬기고 있다.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캠페인 '2020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성료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는 지난 9월 12일(토) '2020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 이어진 밤길걷기는 자살률을 낮추기 바라는 의미를 담아 매년 세계 자살예방의날(9월 10일)을 전후해 해 질 녘부터 동틀 때까지 함께 걷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12일 오후 5시부터 'Live WALK'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생중계를 시작해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장소에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그우먼 송은이, 김신영의 사회로 자살예방의 필요성과 자살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참가자들은 걷기에 앞서 'Live WALK'를 시청하고 이들 중 100명은 영상으로 참여하였으며, 출발 카운트다운 이후에는 라디오 모드로 전환해 생중계를 들으며 걸었다.

전국 6,330명의 참가자는 5.8km, 11.5km, 26.6km, 37.5km 중에서 미리 신청한 코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걷기 시작했다. 각 거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5.8명, OECD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 11.5명, 대한민국 10만 명당 자살률 26.6명,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자수 37.5명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공원, 산책로, 산길, 아파트 단지, 내 집 런닝머신 위 등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코스를 걷는 참가자들이 눈길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9월 20일까지 각자 걸은 후 완보를 인증하기도 했다. 라이브워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같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을 만날 때마다 멀리서나마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따로 걸었지만 모두 같은 뜻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감동이 전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15년째 이어온 밤길걷기 캠페인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깨를 맞대고 걸을 수 없게 됐지만, Live WALK 생중계를 통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로 모인 후원금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자살예방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아동복지협회와 MOU 체결

아동복지시설아동 위해 실내 놀이체육 배분사업 실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지나 9월 23일(수)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와 아동복지시설 놀이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내 놀이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아동이 외부 활동에 제한받고 있어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아동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기획 및 실시하게 됐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회원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진행 전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관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종합숙박 · 모바일티켓 플랫폼 ㈜여기어때의 기업후원으로 진행된다.

아신대, '테솔 자격증' 시행

영어교육 9과목 이수 및 토익점수 소지해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아신대)는 선교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취업과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테솔 자격증(TESOL Certificate)'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영어교육은 선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선교 도구로 사용되었다. 선교사는 영어교육을 통해 교실 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교실 밖에서는 학생들과 친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학생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신대 선교영어학과의 적잖은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선교지와 국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선교지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섬긴 이도 있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도 있고, 사교육 분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들도 있다.

이 자격증은 현재 선교영어학과에 재학(부전공 포함) 중이거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학부제에서 '영어' 트랙 전공하는 학생은 교내 전산시스템에 마련된 별도의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교영어학과 교과과정의 과목들 중에서 TESOL의 기초가 되는 영어 및 영어교육에 관련된 9과목 이수하고 졸업 전까지 정한 공인토익점수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코로나시대에도 복음은

코로나시대에도 복음은
계속 전하여지누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추수꾼의 사명,
주님 기뻐하시는 가족세트전도(마스크전도)
참으로 놀랍도다.

땅끝에서 태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여
그의 발걸음은 복되도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전도자를 세우는 이여
그의 발걸음은 귀이하도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아니던가
방언의 역사 터지고 병든 자를 일으킨다.
구원의 작은 꽃송이들이여
그대들의 신상을 순수히 마음의 빗장 열었네.
어찌 막으랴,
전도자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총 있으리라.

차차 내일로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성령의 역사 피동되어
주의 손에 사로 잡히누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박 목사의 전도의 기법은 참으로 놀랍도다.

성령께서 쟁기갈아 옥토씨앗 뿌렸네.
오 호라 —신비여 주님의 능력 되셨다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솜씨 위대하도다.
주님의 열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네.

이 땅에 금은보화 없어도
하늘의 금은보화 더한 크신 상급 있으리라.
복음전도 어찌 막으랴
주님주신 위로로 충전하여
계속 도전하라! 도전하라!

하늘의 보화 그대 품에 안기리니
영원한 생명, 하늘의 면류관 선물로 받으리라.
그 전도의 열정이 향기되어 온 지면을 적시누나.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는 발걸음이여,
전도자의 이름, 그대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수 교수
가족세트전도본부장(경찰방송MC)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성 명 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정신을 창학 이념으로 삼고 미래의 세계적 인재들을 교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우리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정신 훼손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이미지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징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이 법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다.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 법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들을 포괄하는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을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다. 윤리성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총장들은 종교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일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김근수 외 회원 총장 일동 ·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외 회원 총장 일동

{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권(대전신학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훈(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안양대학교) 이정숙(*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안(*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열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명지대학교) 정규남(광신대학교) 정상운(*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웅(*총신대학교) 정효제(*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홍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성헌(개신대학원대학교) 주대준(*선린대학교) 최대해(대신대학교) 최문자(*협성대학교) 최성규(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홍진(호남신학대학교) 한영훈(서울한영대학교) 허원구(부산장신대학교)현유광(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가나다 이름순 *전직총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한 명 점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예하성광주신학교

(학장 최 정 식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예하성충남신학교

(학장 오 일 선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하성청주신학교

(학장 김 상 용 목사)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오르세요!
어서요. 어서요.
엄마, 어서 타세요. 아버지도요.
오빠도 새언니도 동생들아 어서 어서 올라 타거라.

세월은 가고 또 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바라며 외친다.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엄마가 믿음으로 타고 새언니가 믿음으로 타고.
큰 동생이 믿음으로 타고.. 막내가 믿음으로 타고…
오빠도 올라타고 우리 집 대장 아버지도 드디어 방주에 올라 타셨다.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내 삶속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시간은 가고 또 가고…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확실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어언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온 가족이 방주에 올라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

CTS, 가을 개편 온 가족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사25주년 CTS 가을 개편 신규 프로그램 소개"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가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CTS는 한국교회의 희망인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성지 프로그램, 명품 해외 설교 등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 유익함을 듬뿍 선사할 것이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편성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 이 땅의 희망, 한국교회의 희망인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 코로나 시대 영성 강화 극복 프로젝트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CTS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롭게 영성 회복을 돕기 위해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연출 이제선)〉을 기획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5차원 교육 방법을 연

구한 'DGA디아글로벌학교' 설립자 원동연 박사가 교육을 맡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진행을 맡는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에서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중요시하는 원동연 박사의 '5차원 전면교육'을 기초로 성경을 배우는 새로운 성경공부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성경 여행에 신학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노영상 목사와 다음세대 전문 사역자 이진원 목사가 참여해 성경공부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그리고 패널로 가수 박지현 집사(V.O.S)와 개그우먼 김경아 집사, 가수 이도진이 출연해 출연자들과 호흡을 맞춘다.

5차원 성경공부를 위해 필요한 25가지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은 25주 동안 10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25주간 진행된다.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 「다음세대 마이크 ON」

□ 자동차를 타고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로마의 성지를 여행하는 신개념 고품격 성지 로드 다큐 「성지를 달리다」

□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빌리 그래함 클래식 명설교」

사 설

하나 된 뜨거운 기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를 지낸 아우슈비츠 생존자는 '어릴 적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보다 북한 수용소가 더 끔찍하다'고 했다. 북 수용소에서는 유아 살해, 강간, 강제 유산, 고문 등이 예사로 일어난다고 북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나서 한 말이다. 김일성 때보다 김정일 때가,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 때가 더 악독하고 지독하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한다. 갈수록 더 악독해지고 잔인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우리 민간인을 6시간 넘게 바다에 놔두고 조사하다 결국 사살, 소각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 할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김정은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니까 감격하고 감격하여 어쩔 줄 모른다. 그리고는 곧바로 김정은 미화에 들어갔다. 김정은이 지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앞장서서 변명을 해준다(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문 대통령의 대북 성과의 결과라며 전에 없던 예외적인 일이라며 들떠 있다.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도...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들의 잔인성마저도 미화하려 드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도 막무가내로 이해해주고 변명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넋 빠진 사람들. 세계적인 만행을 미화하고, 잔인한 김정은을 통 큰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는지 모짜르트 지장가 가사 '탈님은 영창에' 추석맞이 현수막에 소스라쳐 놀라 난리 치는 어이없는 사람들.

통일이 되면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놀라울 따름이다. 저들의 속내는 결코 변한 적이 없다. 적화통일이다.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이 저들의 헌법이다. 즉 공산주의로의 통일이다.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의 종전선언, 미군 철수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일단 해주고 북한이 잘못하면 파기하면 된다고 해서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라고 어이없다는 빈축을 샀는데 이번에 또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은 전쟁 종식이라는 말이고 그러니 미군이 한국 땅에 머물 이유가 없으니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게 북측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북측의 주장을 유엔에서 대변한 것이다. 방역을 빌미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예배회복을 통해 1200만 크리스천들의 하나 된 뜨거운 기도로 우환발 코로나19를 물리칠 것을 호소한다.

공정 강조하던 정부의 불공정

윤영찬 의원은 정치를 하기 전에 기자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영향력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그런 인물이 자기 보좌관으로부터 '주호영(국민의힘 원내 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카카오를 '들어 오라'고 한 것이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도 '민주 없는 민주당, 정의 없는 정의 구현' '언론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들이 나왔다. 정말 정권이 뉴스 전달에 있어, 어떤 언론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배열을 조작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포털들은 지난 2018년 당시 민주당원에 의한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후, 사람 대신 AI(인공지능)를 통하여 뉴스 편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좋아요' 댓글 수, 열독률 등에 의하여 메인 뉴스에 게재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모르지 않을 윤영찬 의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포털사이트를) '들어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다.

진보언론으로 알려진 경향신문도 최근 보도에서, 조국, 추미애 전·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공정 강조하던 문 정부의 불공정"이라고까지 보도하고 있다. 현 정권의 행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불공정의 일들이 잦아질 때,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정권이고, 손해와 아픔을 당하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정권의 힘과, 옳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억압이 아닌 협력과 설득, 공정과 공의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실천할 수 있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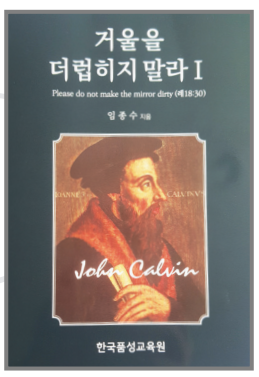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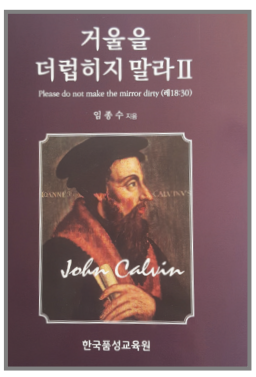
●연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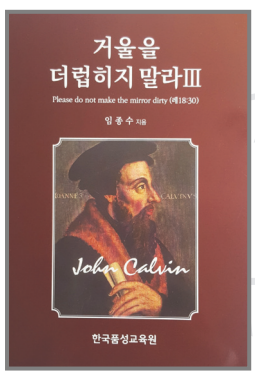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